

1.

제시문 (나)에 드러난 언어 현상의 예시들 중 강추나 즐깬, 갠전 등과 같은 단어는 기존에 있던 단어를 줄이고 있다. ㅋㄷㅋㄷ이나 ㅇㅇ과 같이 기존 단어의 초성의 자음만을 나열한 단어도 있다. 추카추카나 마자와 같이 기존 단어의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들도 있다. 위의 단어들은 모두 새로운 단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같은 뜻을 가지고 쓰이던 단어가 있었으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 짐에 따라서 기존의 단어와 언어 규범이 파괴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제시문 가-1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개인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예시들 중 기존의 언어 규범을 파괴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든 사례들은 개인들의 방종에 의해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무너뜨려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언어 현상의 예시들 중 손주병, 삼포시대와 같은 단어들은 사회가 변하여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필요에 의해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생겨난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시문 가-2에 따르면 변화의 요구에 발맞춘 일탈이나 새로운 사고를 억압한다면 사회가 획일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창조적 생각과 행동들은 기존 사회 질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들 중 사회가 바뀌어 감에 따라서 새로운 뜻을 갖고 기존에 없던 단어들이 만들어진 사례들은 사회를 신선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일탈로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제시문 (다)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사회규범이 문화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라)의 1999년 A국가와 B국가의 사법시험의 여성 지원 비율의 차이가 국가마다 여성에 대한 사회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A국가의 사법 시험 지원을 현황 중 여성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1999년에는 17.2%에 불과했던 여성 비율이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 2008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38%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의 미국과 같이 구성원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사회 규범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A국가의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A국가의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변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A국가에서 지속된다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사법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A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B국가의 사법 시험을 지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1999년과 2008년이 동일하게 38%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B국가가 약 10년간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1999년에는 비교적 A국가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지만 결과적으로 2008년에는 A국가와 동일한 남녀 평등 정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B국가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경직된 상태로 지속된다면 성에 대한 규범이 변하지 않아서 미래에는 A국가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